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네팔, 카타르와 협력하여 신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



네팔이 카타르와 함께 약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네팔 정부는 공항 건설에 대한 세부 프로젝트 보고서(DPR: Detailed Project Report)를 카타르에 송부한 상황이며, 카타르의 수락 후 양국이 공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국제공항 건설은 네팔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의 혼잡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국제 교통 중심지 개발 및 사람과 물자 이동 증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팔 정부, 카타르와 대규모 국제공항 건설 논의

네팔 정부가 카타르와 함께 현대적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건설-소유-운영-이전(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OOT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모델로, 민간 기금으로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신국제공항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네팔의 라빈드라 아드히카리(Rabindra Adhikari) 문화관광민간항공부장관(Minister of Culture, Tourism and Civil Aviation)은 “해당 공항은 지형 관련 위험이 없으며 언제든지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팔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해당 공항은 카트만두에서 175km 떨어진 니가드(Nijgadh) 지역에 약 2,500헥타르(Hectares) 면적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활주로 통관 구역은 약 7km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네팔 정부는 카타르와 투자, 운영 방식 등에 관련된 논의를 세 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네팔의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총리가 4~5월 중 카타르를 방문하여 협정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공항 신축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 일축 및 경제성장 기대

니가드 국제공항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시작되었으나 환경파괴 우려 및 제도적 문제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프로젝트 우선 순위가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 공항 건설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올리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교통 중심지로 니가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항 건설이 국가 우선 과제로 재부상했다.

그러나, 신 공항 건설 발표 이후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에 따르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24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환경적인 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삼림파괴 및 이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라빈드라 아드히카리 문화관광민간항공부 장관은 “240만 그루 이상은 루머일 뿐이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지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플랜테이션(Plantation) 비용 지불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니가드 신국제공항 건설은 नेपाल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일 국제공항의 혼잡함을 해소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नेपाल의 관광객, 대외교역 증대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Aviation Nepal, Nepal sends offer letter to Qatar for construction of Nijgadh International Airport, 2019.01.26
- Airport-technology, Qatar proposes construction of airport in Nijgadh, Nepal, 2019.01.15
- Kathmandu Post, Qatar approaches Nepal to build international airport in Nijgadh, 2019.01.14
- The Himalayan, Nijgadh airport will be built on 2,500 hectares, 2018.09.28